



네팔 대지진 1년...카트만두 밤 밝힌 추모의 촛불 네팔 대지진 1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카트만두의 바산타푸르 두르바라 광장에서 주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당시 규모 7.8의 지진에 이어 규모 7.3 지진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8800여 명이 사망했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작업 지연으로 400여 만명이 천막 등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미국, 내년에 '核 탐지 드론' 띄운다

〈무인기〉

핵·화학무기에 테러범 설치 급조폭탄까지 탐지 시리아·이란에 배치 고려...방사선 노출 우려도

위험적인 핵무기와 화학무기는 물론이고 테러범들이 도로에 설치한 급조폭탄(IED)까지 탐지할 수 있는 무인기(드론)가 이르면 내년 중에 실전에 배치될 전망이다.

미 군사 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즈(MT)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대 부설 융합기술 연구소(FTL) 소속 연구원들은 드론에 핵·화학무기, IED, 지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소형화해 이를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소장인 제리 쿨신스키 명예교수(원자력공학)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목표 지역을 중성자로 채색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이 장치가 가동하고 나면 다시 센서로 폭발물이나 핵 장치 같은 특정 물질의 정

후를 감마선으로 찾는 과정을 거친다는 게 쿨신스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5개월 전에 실용화된 이 기술이 공항에서 수화물이나 컨테이너를 보안 검색하는 사용하는 기술과 같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방사선원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한 것이 혁신적이라고 강조했다.

쿨신스키 교수는 군이 이 드론을 실전에 배치하면 기동성 향상과 함께 전세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송대가 좋은 사례다. 이 드론을 갖춘 호송대는 사전에 도로에 매설된 폭발물 경보를 받아 대응할 수 있다.

제안 시에도 큰 몫을 한다. 지진으로 매몰된 사람들의 위치를 구조대가 정확하게 파악해 구조작업을 펼 수 있으며, 귀환 광

물 자원 매설지점도 확보할 수 있다.

미 우주항공국(NASA) 고문이기도 한 쿨신스키 교수는 이 시스템이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이런 능력을 갖춘 드론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1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청(NN-SA)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시스템은 굉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시리아에서 내전이 끝나 유엔 차원에서 화학무기가 제대로 파괴됐는지 검증할 경우나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는지 파악하는 데도 이런 탐지 능력을 갖춘 드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군과 경찰은 의심스러운 화물에 접근해 폭발물 여부를 확인한 후 폭발시키는 값비싼 장비 확보에 거액을 쓰는 대신 이 드론을 의심 지역 상공에 띄워 감사를 통해 핵물질 여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드론도 만능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혁신 기술이 최근에야 실용화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 평가 시간이 부족한 데다 특히 핵물질 탐지 과정에서 방사선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야 하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쿨신스키 교수는 탐지 과정에서 사용할 방사선량 최소화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목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시간 동안 흡수하는 방사선량은 3만 피트(9144m) 상공을 비행하는 여객기에 탄 승객이 10분 동안 흡수하는 것과 같은 수준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출신 핵물리학자로 환경단체 소속인 매슈 매켄지도 “고농축우라늄 같은 가장 위험한 불법물질 탐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며 “테러조직은 고농축우라늄으로 급조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北 “미국 핵도발 계속하면 육해공 선제타격”

인민군 창건 84주년 중앙대회

북한은 25일 인민군 창건 84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전군의 충성을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사설에서 “전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확립해야 한다”며 “김정은 동지의 영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선이

며 승리의 결정적 담보”라고 밝혔다.

이어 “위대한 백두령장의 공격기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체현하고 최강의 핵타격수단까지 다 갖춘 인민군대를 당할 적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조선인민군이 지켜선 우리 조국은 영원히 금성철벽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신성한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려는 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던 추호도 용

서치 않는다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신조”라며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제일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특히 “잠수작전이나, 족집게식 타격이나 뒤편 타격 등 핵전쟁을 몰아오는 일촉즉발의 정세속에서도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해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조선의 모습에서 백두령장의 신념과 배짱을 똑똑히

새겼다”고 김 제1위원장을 찬양했다.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기념일을 맞아 김 제1위원장장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각계 주민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평양 인민문화관에서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는 핵도발방향을 계속 부린다면 백두산 혁명강군은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가장 철저한 징벌의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㉔ 맹장 관우

관우(關羽, ?~220)의 자는 운장(雲長)으로 유비,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고 촉나라 건국에 크게 기여한 삼국시대의 대표적 맹장이다.

그는 하동군 해현(오늘날 산서성 운성시) 출신으로 옛날부터 소금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소금 밀매에 관여하던 중 소금 거래상을 죽이고 유주탁군으로 도피했다. 어렸을 때 아명은 상생이었다. 도피 중 기러기 한 마리가 깃털 한 개를 떨어뜨렸으므로 깃털 우자를 써 관우로 이름지었다고 한다. 탁군에서 유비와 장비를 만나 유명한 도원결의를 맹세한다. 진수의 삼국지 열전에는 “유비는 두 사람을 친형제와 같이 신뢰하여 잠잘 때 두 배개를 나란히 하고 같이 잘 정도였다”고 세 사람의 우정을 묘사하고 있다.

199년 유비는 서주목이 되었고 그는 하비성의 수비를 담당했다. 조조는 원소와의 관도 결전을 앞두고 유비를

중으로 늘 빼마디가 쑤셨다. 의사는 “뼈를 절개해서 스며든 독을 제거해야만 치유될 것”이라고 진찰했다. 뼈를 절개하자 피가 그릇에 넘치게 되었는데도 술과 고기를 마시면서 평소와 같이 답소했다고 한다. 그의 용맹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212~219년 사이 약 7년간 형주를 지키고 있었는데 위의 조인은 번성해 주둔해 복상을 저지하고 있었다. 오의 손권이 자신의 머느리로 그의 딸을 달라고 요청하자 단호히 혼사를 거절하고 사신에게 옥설을 퍼부어 쫓아냈다. 지나친 교만 때문에 ‘손권과 연대하여 조조에게 대항한다’는 축의 외교노선을 무시하고 위와 오 두나라를 적으로 돌려 몰락의 단서를 제공했다. 오의 공격에 대비해 강릉에 다수의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오의 맹장 여몽이 병에 걸렸다는 그릇된 정보에 속아 군대를 차출했다가 강릉을 함락당했다. 번성에서 위의 서황에게 패한 관우는 맥성으로 철수했지만 대부분의 병사

의리와 부의 神...중국 곳곳에 관제묘

공격해 화근을 제거하려 하였다. 소패성에서 유비를 물리치고 하비성을 포위하여 유비의 부인들을 포로로 삼고 항복을 받아냈다. 그는 중과부적인 상태에서 부인들의 안위를 위해 부득이 항복한 것이다. 조조는 “전하가 유비보다 관우에게 더 잘 해주면 그도 마음대로 전하를 따르게 될 것이다”는 장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그를 편장군에 임명하고 우대하였지만 유비에 대한 충정은 변함 없었다. 관도 전투에서 원소의 맹장인 안량과 문추의 목을 베어 한수정후에 봉해졌지만 결국 유비쪽으로 돌아갔다.

조조와 오·촉 연합군 사이의 적벽대전이 조조의 대패로 끝난 후 유비는 그를 형주 도독으로 임명해 조조와 손권의 침략에 대비케 하였다. 그는 유달리 자존심이 강했다.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하여 중용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제갈량에게 서한을 보내 마초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그의 자존심을 잘 알고 있는 제갈량은 “마초는 문무를 겸비한 영웅이지만 관장군에게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답장을 보내 기분을 풀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어느날 전투 중에 화살을 맞아 후유

가 도망가는 바람에 퇴로를 차단당했다. 결국 오군에 체포되어 아들 관홍과 함께 참수되었다. 슬픈 영웅의 말로였다.

관우는 삼국지의 영웅에서 그 후 의리와 부의 신으로 높이 존송되었다. 그는 관성대제로 추앙받고 그를 제사하는 관제묘(關帝廟)가 중국 각지에 세워졌다.

그의 의리, 대장부의 기개, 무엇보다도 비참한 죽음이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연스럽게 민간의 수호신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중국인 전체가 커다란 인간적 매력에 느끼고 있다. 언론인 이마이즈미 준노스케 말처럼 그 흠인력의 원천은 큰 체구와 충성심, 서민적인 분위기,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단순함일 것이다.

송말부터 청말까지 관우는 거의 900년에 걸쳐 국가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송 휘종은 그에게 충혜공이라는 시호를 하사했고 명대에는 관성군으로 불리우며 황제의 변역까지 격상되었다. 민주주의 청대때 특히 관우 존송 열기가 가장 고조되었다. 북경에만 116곳의 관제묘가 있었고 청말 실력자 서태후는 관우가 등장하는 연극 장면마다 기립해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커피숍 상가 건물 매매(전대정문)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p>□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p> <p>→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p> <p>→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p> <p>□ 매가 1억 1천만</p>	<p>□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p> <p>→ 2층 (11평) 은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p> <p>→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p> <p>□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p> <p>→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p> <p>→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p> <p>□ 매가 8천 500만</p>	<p>□ 광산구 월계동 참단지구 1층 상가</p> <p>→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p> <p>→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p> <p>□ 매가 1억 5천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p> <p>→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p> <p>→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 4백만)</p> <p>□ 매가 7천 500만</p>	<p>□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아파트</p> <p>→ (6평) 2층 - 전경 좋음, 주변 골목상권, 아파트 밀집지역</p> <p>→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 5백만 가능)</p> <p>□ 매가 3천 5백만</p>

010-6834-4800

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

<p>□ 전남 장성 삼서</p> <p>→ (토 3492평, 건 5733평) (의료시설)</p> <p>→ 1층~3층 (의료시설 전) 요양병원 운영</p> <p>→ 정성 상무대 입구, 대로변</p> <p>□ 감정가 48억 8천 6백 → 최저가 34억 2천만</p>	<p>□ 동구 동명동</p> <p>→ (토 211평, 건 608평) (근린시설)</p> <p>→ 1층 (소매점) 2층~6층 (오피스텔) 등</p> <p>→ 동명 교회 북측 인근, 4차선 도로접</p> <p>□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9억 5천</p>
<p>□ 서구 양동</p> <p>→ (토 577평, 건 424평) (숙박시설)</p> <p>→ 1층 (주거지) 2층~5층 (숙박시설 40개)</p> <p>→ 광주은행 동측 인근, 약 10M 도로 접</p> <p>□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6억 8백</p>	<p>□ 전남 순천 조례동</p> <p>→ (토 2332평, 건 3960평) (근린시설)</p> <p>→ 7층 건물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주택, 헬스) 복합 건물</p> <p>→ NCC행정부근, 대운아파트 단지, 순천C중상지 대문변</p> <p>□ 감정가 140억 → 최저가 64억 5천</p>
<p>□ 서구 화정동</p> <p>→ (토 800평, 건 267평) (동 나이트)</p> <p>→ 광천터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p> <p>→ (나이트 직영, 터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p> <p>□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2억</p>	<p>□ 북구 운암동</p> <p>→ (토 66평, 건 194평) (근린시설)</p> <p>→ 1층~5층(사무실) 지하(음식점), 6차선도로 접</p> <p>□ 감정가 7억 4천 → 최저가 7억 4천</p>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인원분, 부동산 경매 관심 인원분, 가족처럼 밀착서비스 환영합니다.

010-6832-9700